

『교원선전수첩』에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 분석*

김경미**

본 연구는 『교원선전수첩』 기사 분석을 통해 북한교육에 등장한 심리학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당국의 심리학 목표인 “논리적 사고력과 사람과의 사귄 능력을 소유한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 양성과정을 드러내고 북한심리학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심리학은 북한교육법 제정 및 개정 변화에 따라 1953년 등장 및 1954년 폐지, 2003년 재등장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세계화 및 과학화를 강조하며 심리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심리학을 교육과정 전반에 도입하여 우리식 심리학의 체계 확립을 시도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심리평가를 통하여 사상검증용 도구 제작 의지도 드러냈다. 더불어 논리적인 사고력 향상 도모 및 혁명적 세계관 강화 교육정책을 추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북한심리학은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인간의 심리와 의식에 대한 심리학을 기반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상이 건강하여 북한 당국의 요구와 방침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지향하며 교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흐름은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지식경제시대 인재상의 교육이념과 원칙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북한교육, 북한심리학, 사회주의심리학, 교원선전수첩,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

* 이 글은 필자의 석사 학위논문 “북한심리학의 형성과 변화 연구: 『교원선전수첩』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2019)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을 심사해주신 3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1. 서론

본 연구 목적은 북한 중등교육부문에서¹⁾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학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에서 교육하는 심리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북한 당국이 심리학 교육을 통하여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2018년 8월 기준으로 2003년 제1호(3월 4일 자)부터 2018년 제2호(6월 22일 자)까지 『교원선전수첩』 수록 기사에서 북한의 심리학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교육은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생활의 심중한 변동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²⁾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조 및 교육 불평등의 사교육 확산 등의 교육쟁점이 드러나는 시기였다. 북한의 심리학은 1953년 등장했다가 1954년에 폐지되었다.³⁾ 그 후 ‘2003·2004년도 교육강령조치’에서 심리학의 재등장 배경은 김정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⁴⁾ 김정일은 중학교에서 심리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사고력이 약하고 인간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사상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세계화 및 과학화 교육 방향을 권장하면서 학생 및 교원 대상으로 심리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법 제정 및 개정 변화에 따라 등장한 심리학의 교육적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북한 당국의 중등교육과정은 ‘중학교, 고등중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등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원전에서 표현하는 중등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2) 교육도서출판사,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58쪽.

3) 교육도서출판사, 위의 책, 206~209쪽.

4) 『교원선전수첩』, 3호(2011), 15~17쪽.

한 사람에게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개인의 심리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⁵⁾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는 국가 이익을 위해 심리학을 활용하였다.⁶⁾ 북한교육은 당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북한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교육수혜자에게 내면화하여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제도 유지 목적으로 지식을 통제하기도 한다.⁷⁾ 그런 면에서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심리학에 의존하여 체제 유지 가능성 내포 및 재생산에 필요한 교육을 어떻게 전수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심리학은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원선전수첩』 기사를 바탕으로 심리학교육 목표인 “논리적 사고력과 사람과의 사업 능력을 소유한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 양성과정을 드러내고 북한교육에 나타난 심리학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북한심리학 관련 연구는 심리학 교재를 설명하거나⁸⁾ 북한 교육 및

-
- 5) A. V. 페트로프스키(A. V. Petrovsky) 외, 『인간행동의 심리학』, 김정택 옮김(서울: 사상사, 1993), 50쪽.
- 6) 소련심리학의 바탕을 이루는 레닌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주도 이후 사회주의는 인간의 심리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레닌은 혁명 이후 군주정치는 무너뜨렸지만 온전한 혁명을 위해서 대중의 전통과 구세력의 사상 개조 필요성을 느꼈다. 해당 시기 레닌은 파블로프 연구보고서를 읽고 “이로서 혁명의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말한 일화가 있다. 스탈린 또한 파블로프 조건반사를 도입하여 사회주의 체제 자극에 동일하게 반사하는 인간형 창조를 위해 당과 국가기구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 개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카다 다카시,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 황선중 옮김(서울: 어크로스, 2010), 147~148쪽; 김옥주, “20세기 중엽 소련의 의학사상-파블로프 이론과 스탈린주의의 결합,” 『한국과학사학회지』, 22권 2호(2000), 244~246쪽.
- 7) 마이클 애플(Michael W. Apple), 『교육과 이데올로기』, 박부권·이혜영 옮김(서울: 한길사, 1985), 44쪽.
- 8) 도홍렬, “사회주의 심리학의 비판,” 『북한학보』, 8권(1984), 183~205쪽; 배영기, “북한 교육현실과 ‘사회주의심리학 교재’ 비판,” 『北韓』, 184호(1987), 170~179쪽.

철학, 주체사상의 하위범위로 분석하였다.⁹⁾ 또한 북한심리학과 문학 교육의 융합 연구가¹⁰⁾ 나오기는 했으나 북한 당국이 심리학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전개한다는 의지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자는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북한심리학 관련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심리학 특징에 초점을 맞추며 심리학 관련 기사 전반을 연구범위에 포함함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교원선진수첩』은 1969년에 창간·발행되었는데 1969년부터 2002년까지 발행된 자료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열람 가능한 200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교원선진수첩』은 교육 관련 연구 자료로¹¹⁾ 활용되었지만 북한심리학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은 비교적 정치적 선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며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반영하는 유용한 1차 자료로서¹²⁾ 북한 교육현장을 부분적이거나 드러낸다는 점에서 분석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주의심리학』, 『심리학개론』, 『사회주의아동심리학』과 같은 심리학교육 관련

9) 김형찬,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서울: 문맥사, 1990); 이병창, “해방 이후 북한철학사: 의식, 문화, 도덕, 심리에 관한 철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5권 2호(1994), 96~132쪽; 이훈, “북한철학의 흐름,” 『시대와 철학』, 5권 2호(1994), 11~37쪽; 김익현, “주체사상 체계화 이후 북한철학에 나타난 변화와 이론적 특징,” 『통일인문학』, 50권 2호(2010), 65~102쪽.

10) 이영미, 『북한 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문화사, 2012); 이영미, “북한 문학교육의 내적 동학(動學),” 『현대문학이론연구』, 30집(2007), 27~51쪽.

11) 정호정, “2000년대 북한의 지능교육 정책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박찬석, “2010년대 북한 소학교 교육의 전개와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윤리학회』, 88권(2013); 김문정, “2005년 간행 북한 교과서 『지리』의 학습 자료 및 학습활동분석”(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2) 신효숙,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2006), 137쪽.

단행본과 『교원신문』, 『교육신문』, 『철학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인민교육』 같은 교육 관련 간행물을 참고하여 북한심리학의 모습을 재구성한다. 이에 따라 북한 중등교육과정의 심리학 특성 및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 북한심리학의 형성과 변화

1) 북한심리학의 특성

1960년대 북한의 심리학 분야는 소련심리학을¹³⁾ 도입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개발한 ‘사회주의심리학’을 적용한 교수·학습론이 등장하였다.¹⁴⁾

북한의 심리학은 1970년대 이후부터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⁵⁾ 해당 시기 북한 당국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13) 소련심리학은 레닌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하고 있다. 소련심리학은 사람의 이념적 신념과 심리적 특성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각, 인식, 사고는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겼다. 소련심리학에 영향을 미친 파블로프는 물질을 우선시하는 유물론의 반영이론으로 접근하여 고등 신경 활동을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Levy Rahmani, “Social Psychology in the Soviet Union,” *Studies in Soviet Thought*, Vol.13 No.3/4(1973), pp.222~226.

14) 김형찬, 『북한의 교육』, 167쪽.

15) 북한심리학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인간심리, 의식의 본질과 특징, 심리적법칙과 기전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심리학”으로 설명하였다. 모든 심리학과 구별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심리학으로서 사람들의 복잡 다양한 심리현상, 심리생활”을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지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리재순, 『심리학개론』(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8), 8~10쪽.

확립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시기였다. 북한의 정치, 경제, 교육,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 ‘김일성주의·주체사상’을 물들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심리학 분야도 기존 일반심리학에서 벗어나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심리학’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북한심리학의 목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력사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간”을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존재인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여 혁명과 건설에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¹⁷⁾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심리학은 북한 주민을 혁명적 세계관과 ‘수령관’으로 무장시켜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북한심리학의 학습이론은 ‘실천 학습’과 ‘인간 의식의 재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실천 학습은 관찰을 넘어 실천할 때 지식이 견고해지므로 노동과 실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인간 의식의 재구조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제도와 물질적 조건이 변화하더라도 ‘낡은 사상’과 습관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식이 사회주의 사회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¹⁸⁾

북한심리학은 인간의 인식 능력의 선천성보다 후천성을 강조하였다.¹⁹⁾ 이것은 ‘부르쥬아심리학’이 강조하는 선천성을 무시하고 “학습

16) 북한 당국에서 발행한 『사회주의심리학』에 따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심리학은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사람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심리의식과 그 형성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 주고 특히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방도를 밝혀 주는 위대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라고 밝혔다. 집필위원회, 『사회주의심리학: 사범대학용』[도쿄: 학우서방(번각), 1974], 7쪽.

17) 집필위원회, 위의 책, 14~15쪽.

18)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서울: 한백사, 1988), 103쪽.

19) 김형찬, 『북한의 교육』, 168~169쪽.

과 혁명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모두다 능력있는 혁명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길러내”는 후천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²⁰⁾ 인간의 심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환경을 반영하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 사람은 사회주의 사회에 맞게 형성된 교육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북한의 심리학 교육정책

(1) 1953~1960년대 심리학의 등장과 소멸

북한은 1953년 8월 5일 교육과정안 개정을 통하여 고급중학교에 심리학 과목을 포함하였다. 심리학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인간의 심리 활동을 연구하고 과학적 세계관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²¹⁾ 그러나 1954년 교육과정안을 제정 발표하면서 고급중학교에 심리학 과목을 폐지하였다. 그 이유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의 학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이해에 곤란한” 심리학 과목을 제외시켜 전체 수업 시수를 줄인 것이다.²²⁾

1954년 심리학 과목 폐지는 교과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심리학 교과서 채택의 고민을 교육성령 제30호와 제2기 ‘교수요강, 교과서 검토 요강’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존 사범전문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사전용 심리학 교과서’

20) 집필위원회, 『사회주의심리학: 사범대학용』, 204쪽.

21) 교육도서출판사,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206~207쪽.

22) 교육도서출판사, 위의 책, 209쪽.

를²³⁾ 번역한 것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나라 실정과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으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²⁴⁾ 따라서 북한 당국은 심리학 발전을 위하여 심리학 교과서를 “반드시 우리들의 손으로 저술”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⁵⁾

북한 당국은 사전용 심리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심리학의 기초 이론 및 레닌의 반영론, 파블로프 고차 신경 활동이 과학적 본질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은 학교 상황과 적절하지 않아서 사범전문학교 교사교육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수 방법에서 아동의 심리특성 고찰이 부족하여 아동 교양의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성이 적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²⁶⁾

그로 인하여, 북한 당국은 교육 현실에 맞는 심리학 교과서를 개편

23) 사범전문학교 심리학 및 교육학(교수론)은 “이·브·쓰탈린의 학설에 비추어” 교수방법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민보건』 기사에서 “1953년도와 1954년도에 발행된 소련 의학 잡지에서 이·뻬·뻬블로브의 강의와 논문들을 번역하여 게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전용 심리학 교과서는 소련심리학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원신문』 1955년 8월 10일; 편집부, “이·뻬·뻬블로브 기술 강좌: 이·뻬·뻬블로브의 유산을 연구하자,” 『인민보건』, 9호(1958), 한선화 외,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 『의학사』, 22권 3호(2013), 801쪽 재인용.

24) 『교원신문』, 1957년 3월 9일.

25) 위의 글.

26) 예를 들면, 심리발전을 다루는 내용에서 ‘아동 심리 발전’ 서술이 없으며 매개 심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 인민 학교 연령기 아동들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되며 이에 대하여 어떻게 교양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각과정의 분석, 주의와 흥미와의 관계, 창조적 상상 및 공상, 과제 해결 시의 사고과정, 감정의 개인차, 의지 동작의 분석, 숙련 및 습관, 능력과 재능, 기질과 성격 등의 내용도 아동의 학습활동의 실제 문제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일부 학생들이 실제 교육 실습 행정에서와 학교 졸업 후 교단에 서서 아동들을 교양할 때 심리학적 이론에 기초한 지도 사업을 불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원신문』, 1957년 3월 9일.

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평이 해득’ 원칙과 흥미 조성을 위하여 실험 및 실습 시범을 보이면서 관련된 예시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둘째, 파블로프의 고차 신경 학설을 구체적인 심리현상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지, 동작, 흥미 등의 생리적 기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심리학 교과서를 바로 출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심리학 교과서 제작 의지를 밝힌 이후 거의 13년 만인 1974년에 사범대학용 『사회주의심리학』을 출판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심리학교육은 지속하지 못했지만 『교원신문』에 교육심리학 시리즈를 게재함으로써²⁷⁾ 심리학 지식은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육심리학 까비네트를 운영하여 “선진적인 교육심리학 이론과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²⁸⁾ 교육심리학 까비네트 운영을 위하여 크루쇼크를²⁹⁾ 조직하기도 하였다. 크루쇼크 조직은 교원 경험자, 사범전문학교 졸업생 중에서 학급별로 1~2명씩 선발하여 연구 진행 및 교육심리학 강좌 내용을 “자기 학급에 침투시키며 학급 학생들의 교육학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하였다.³⁰⁾ 교육심리학 까비네트 사업은 특별 강연으로 학생의 지식 확대 및 당 교육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전달하는 역할도 이루어졌다.

27) 『교원신문』 1960년 1월 27일; 1960년 2월 3일; 1960년 2월 6일; 1960년 2월 13일; 1960년 2월 17일; 1960년 2월 20일; 1960년 2월 24일; 1960년 3월 2일; 1960년 3월 5일; 1960년 3월 12일; 1960년 3월 16일; 1960년 3월 19일; 1960년 3월 23일; 1960년 3월 26일.

28) 『교원신문』, 1960년 5월 21일.

29) 크루쇼크(кружок)는 소조라는 뜻으로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적은 집단”을 의미한다. 김상현·김광현, 『(대중) 정치 용어 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302쪽.

30) 『교원신문』, 1960년 5월 29일.

심리학교육은 1960년 초반까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선진수첩』은 196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한국에서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과 관련한 내용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³¹⁾

(2) 2003년 이후 심리학 재등장

북한은 2000년대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력 교육을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사고력 강화 방법으로 1953년 등장했다가 1954년 폐지한 심리학을 2003년 중등교육과정에 ‘심리학초보’ 교과목으로 재편성했다. 2003년도 중등학교에 ‘심리학초보’ 과목이 배정된 이유는 김정일이 “심리학을 중학교에서 배워주지 않고 대학에서도 일부 학생들에게만 심리학을 배워주다 보니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분

31) 북한심리학의 소멸 과정 파악을 위하여 교육 관련 자료 이외 『로동신문』을 살펴보았다. 『로동신문』 검색 기간을 1951년부터 1970년까지 설정하고 ‘심리’를 검색하면 총 14건의 기사가 등장한다. 그중에서 교육부문 심리학 기사는 6건으로 어린이·중학생·청년의 심리특성에 대한 내용이다(1962.6.19; 1963.1.22.; 1964.1.17.; 1966.5.21.; 1966.7.2.; 1966.7.15). 북한의 대표적 신문에서도 1960년대 북한심리학의 소멸 과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학문 분야를 통하여 이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련심리학에 영향을 미친 파블로프 이론은 1950년대 북한 의학 분야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다. 북한 당국은 1950년대 파블로프 이론을 낡은 부르주아 의학을 청산하는 사상투쟁의 무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선의학’의 과학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한선화 외(2013) 연구에서 홍순원의 『조선보건사(1981)』는 1981년 주체의학 확립 이후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파블로프 이론을 “사대주의”로 간주하며 파블로프 이론에 의존했던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북한 공식 문헌이 사실을 개찬(改竄)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 주는 사례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사유로 파블로프 내용이 『인민보건』 및 『조선의학』에서 등장했다가 1960년대 갑자기 사라지게 된 배경을 추적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선화 외,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 803쪽.

석력이 약해 사상사업을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하지 못하고 형식주의적으로” 하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이다.³²⁾ 김정일 지시에 의하여 심리학교육은 북한 전역의 모든 대학, 모든 학과, 중학교에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의 학교교육은 청소년의 ‘심리의식’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세계관 골격’과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였다.³³⁾ 더불어 청소년 교육은 심리학과 교육학을 적용한 ‘교육학적공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교육학적공정’에 따른 교육은 혁명적 세계관, 혁명전사, 현대과학기술을 갖추고 건강한 체력을 소유하며 사상심리와 성품을 갖춘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³⁴⁾

북한은 ‘2003·2004년도 교육강령조치’에서 중등학교 5학년에 ‘심리학초보’ 수업을 28시간 배정하였다.³⁵⁾ 심리학교육의 목적은 사상정신적 품모 형성 및 집단생활 원리를 교육하여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다.

심리학초보는 “사람의 마음의 리치, 정신활동의 리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³⁶⁾ 심리학초보 교재는 사람의 인식활동, 정신적 품모, 개인 및 집단심리 특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심리학 초보 원리와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인식활동은 지각, 사고 기억, 주의를 학습하며 정신적 품모는 사상, 신념, 의지, 감정, 지향이

32) 『교원선전수첩』, 3호(2011), 15~17쪽.

33) 김정일, “일군들의 레의도덕을 잘 지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87쪽.

34) 집필위원회, 『사회주의심리학: 사범대학용』, 40~41쪽.

35) 중등학교 5학년 총수업은 1,124시간이다. 그중에서 심리학초보에 배정된 시간은 28시간이다. 오기성 외, 『남북한 통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연구』(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126쪽.

36) 『교원선전수첩』, 2호(2011), 188~189쪽.

개인의 품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교육하고 있다. 개인 및 집단 특성으로 성격, 성미, 능력, 버릇 같은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심리학초보는 암기학습이 아닌 이치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과학화와 정보화를 지향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제정하면서 기존 중등학교 과정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하였다. 2013년 ‘제1차 전반적12년제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에서 고급중학교 5학년에 ‘심리와 론리’ 과목을 주당 34시간 배정하였다.³⁷⁾ 기존 ‘심리학초보’와 ‘론리학초보’ 과목을 ‘심리와 론리’로 통합하였다. ‘심리와 론리’ 과목은 “전문단계에서 학습하는 심리학의 내용과는 달리 사고발전을 비롯한 심리발전 수준이 높지 못한” 학생 대상으로 심리현상의 기초 원리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³⁸⁾ ‘심리와 론리’ 교육은 인식심리, 내면세계를 이루는 심리(사상심리), 개인의 특성으로 편성되어 있다. 인식심리는 지각, 표상, 사고, 기억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내면세계를 이루는 심리(사상심리)는 감정, 의식, 사상의식 개념을 다룬다. 개인의 특성은 흥미, 관심, 이상, 성격, 성미, 재능 중심으로 교육한다. ‘심리와 론리’는 전반적으로 심리 형성을 학습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능력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37)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34쪽.

38) 최명애, “심리교수에서 중점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한 연관 내용을 인식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 『인민교육』, 4호(2015), 51쪽.

3. 『교원선전수첩』 관련기사 내용분석

1) 북한심리학의 철학 변화: ‘주체심리학’에서 ‘우리 식 심리학’으로

『교원선전수첩』에 나타나는 일반심리학의 공통점은 ‘반동적’이며 ‘부르조아심리학’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일반심리학이 부르주아 요구에 따라 사회적 인간의 심리와 의식이 아닌 자본에 순응하는 인간의 행동과 무의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반심리학을 비판하면서 1970년대 주체사상에 근거한 심리학을 개발하였다. 기존 일반심리학은 비과학적이며 인간의 사상과 의식을 개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심리전을 활용한다고 인식하고 ‘사상적 침투’ 경계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³⁹⁾ 북한 당국은 사상적 침투를 막기 위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심리학’에 반영된 공산주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주체심리학은 인간심리의 의식 발전과 형성원리, 세계관 형성, 인간의 본성과 성격, 혁명가의 이상과 포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심리학의 특징은 ‘주체심리학’에서 ‘우리 식 심리학’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주체심리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체심리학’ 바탕 위에 일반심리학을 활용한 ‘우리 식 심리학’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철학적 지형 변화는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철학은 새로운 시대의 요청을 반영하여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39) 『교원선전수첩』, 2호(2008), 37~39쪽.

다.⁴⁰⁾ 그런 맥락에서 북한심리학의 철학 변화는 교육에 적용하고자 시도하는 실용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심리학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 심리학교육에서 당당히 세계를 앞서 나가자면 세계적인 심리학발전추세”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⁴¹⁾ 또한, 부르주아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숫자로 설명하여 행동을 기능적으로 접근한다는 오류를 지적했던 과거의 비판에서⁴²⁾ 벗어나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대안으로 심리평가척도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 식 심리학’의 기본토대 마련을 위하여 ‘심리학발전추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⁴³⁾ 첫째, 심리학이 과학 중심이 되면서 다양한 학문과 융합하여 새로운 학과 및 연구영역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학과 경제학 결합이다. 심리학과 “경제과학, 행위분석리론과 경제운영법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발전완성된 행위경제학”은 경

40) 정영철,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와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의 등장,” 『한국과 국제정치』, 31권 3호(2015), 79쪽.

41) 『교원선전수첩』, 3호(2016), 145~146쪽.

42) 『철학연구』에서 부르주아심리학에 대한 글을 살펴보면 인간의 행동을 수치화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행동과학〉과 밀접히 결탁되고 있는 부르주아심리학은 인간심리에 대한 추상적 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인간행동을 기능적 행동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그 기본방법으로서의 수량적 측정, 통계적 수법, 수학적 모형화..., 이와 관련하여 오늘 부르주아심리학에서는 수학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심리학에서는 모든 심리현상이 수학적으로 기초지어지고 설명되어야만 과학적인 것으로 되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을 생리화학할수 없는것처럼 그것을 역시 수학적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심리학을 수학화하려는 경향은 부르주아심리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룰 수 없는 그 자기 무능을 〈엄밀과학〉의 가면으로 위장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기계론〉 철학의 영향이 미친 결과이기도 하다.” 남승일, “부르주아심리학에 대한 비판,” 『철학연구』, 3호(1988), 46~47쪽.

43) 『교원선전수첩』, 3호(2016), 145~146쪽.

제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의 경제활동 및 원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⁴⁴⁾ 둘째, 심리학 연구는 “지구상 많은 나라와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와 종족집단사이의 공정성과 차이를 중시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⁴⁵⁾ 예를 들면 동방문화는 집단주의 방식을, 서방문화는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른 지역과 종족집단의 문화적 충돌을 해결하고 이해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심리학은 새로운 응용과학 개발, 즉 생태심리학과 재해심리학 같은 응용심리학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 당국은 세계적인 심리학 발전 변화에 따라 북한심리학의 변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당국의 의도는 심리학부문 교원과 연구사에게 새 세기 교육혁명 흐름을 반영하고 당의 의도를 헤아려 심리학 발전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심리학은 ‘우리 식 심리학’의 틀 형성을 위하여 세계적인 심리학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의 변화를 도모하며 “학생들이 새롭고 쓸모 있는 지식을 더 빨리 알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타냈다.⁴⁶⁾ 그 방법은 심리학을 실용화·종합화·현대화하는 것이다.

실용화는 기초 및 전공영역 구분 없이 “사람과의 사업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⁴⁷⁾ 예를 들어 아동 및 청년심리, 지식 습득과정, 문제풀이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설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심리학을 활용하여 사람과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는 긍정 및 부정적인 문제, 감정, 사고, 성격 관련한 내용을 다룰 줄 알아

44) 위의 글.

45) 위의 글.

46) 『교원선전수첩』, 3호(2016), 142~144쪽.

47) 위의 글.

야 한다고 하였다. 종합화는 심리학 기초 및 전공 내용을 밀착 구성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심리학 이론과 사회정치현상, 주체철학, 사회주의교육학 이론을 재구성하여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현대화는 심리학 최신자료를 교수방법에 반영하며 자료구축은 심리학 개념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심리학은 주체심리학을 바탕으로 세계화 추세를 따라 일반심리학 이론과 변화를 교육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심리학 통합적 시행: 심리학 하위 학문 영역과 타 학문과의 연계

심리학의 통합적 시행 특징은 심리학의 하위학문 영역과 타 학문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먼저 심리학의 하위 학문과의 통합적 시행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학교·발달·실험·음악·체육심리학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⁴⁸⁾ 이와 같은 심리학은 학생의 심리특성과 발달상태, 사고력 수준을 파악하여 교육방법 및 교수방법에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으로 학교 정상화 시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업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도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심리학의 하위 학문과의 통합적 진행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학을 활용하여 사상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사상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원 교육

48) 『교원선진수첩』, 2호(2011); 3호(2013); 1호·3호(2014); 2호·4호(2015); 1호·3호(2016).

부터 “정치사상의식을 씩” 띄워 주며,⁴⁹⁾ 중등교육에서 혁명적 세계관과 사상정신적 품성을 강조하고 대학에서는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당의 방침’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교육하였다. 둘째, 교사와 학생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학교심리학자와 학교심리상담사가 등장하였다. 학교심리학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심리평가 기준으로 해결하며, 심리평가는 의학 진단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⁵⁰⁾ 또한,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약 처방과 함께 일상생활 실천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효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¹⁾

셋째, 심리평가 실시는 특수교육과 학습장애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은 역사적으로 ‘심리측검’을 기본으로 하며, 19세기 ‘지능이 락후된 아동’ 교육 권리를 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라 북한 당국도 학생의 ‘심리평정’과 ‘심리측검’을 진행하여 ‘지능이 락후된 아동’ 즉, 학습장애 학생을 선별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⁵²⁾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의 공백기를 경험한 학생의 학습과 지식수준은 저하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학습장애는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만성장애이다. 북한 당국은 학습장애로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지능장애, 교육방법, 가정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⁵³⁾ 더불어 학습장애 요인으로 정서적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어린이는

49) 『교원선전수첩』, 1호(2012), 145~146쪽.

50) 『교원선전수첩』, 3호(2015), 161~163쪽.

51) 『교육신문』, 2015년 5월 28일.

52) 『교원선전수첩』, 3호(2015), 161~163쪽.

53) 박정철, “학습장애에 대한 일반적리해,” 『철학연구』, 3호(2012), 35~36쪽.

성장과정에서 우울과 공포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장애 어린이를 올바르게 진단하여 합리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즉, 북한 당국은 학생의 학습장애 여부를 심리평가를 통하여 진단 및 선별하여 학업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심리평가의 목적은 심리건강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상 검증을 위한 도구 활용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심리건강은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인격의 기초뿐만 아니라 사회 및 집단생활을 유지하며 과학지식을 습득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특히 심리건강은 ‘사상정신적’ 영향을 쉽게 받는 학생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⁵⁴⁾ 심리건강은 지식습득에 필요한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며 사회와 집단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사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은 심리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심리상태와 심리수준 파악을 넘어서 “우리 당이 요구하는대로 군중과의 사업을 그들의 마음과의 사업으로 진행할수 있는 사상정신적인 자료, 심리적 전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⁵⁵⁾ 궁극적으로 심리평가는 사상 검증 파악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리학은 타 학문과의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심리학 교육의 목적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심리학교육을 통하여 형성된 논리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진수를 원리적으로 파악하고 전개해나갈수 있는 밑천”이 되는 것이다.⁵⁶⁾ 이것은 주체사상을 깊이 해석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54) 『교원선전수첩』, 4호(2016), 156~157쪽.

55) 김미화, “군중심리평가의 특성,” 『철학연구』, 1호(2014), 31~32쪽.

56) 『교원선전수첩』, 3호(2009), 40~41쪽.

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리학 통합교육은 사회주의 교육학, 외국어, 과학기술교육을 결합한 형태로 나타났다.⁵⁷⁾ 이것은 학생의 심리특성과 능동적인 사고활동, 사고 자립성 계발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교육학 통합교육 방법은 당국의 정책 요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 지식을 선택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즉 “당 정책을 뼈에 깊이 새기”는⁵⁸⁾ ‘산지식’으로 학습하기 위해 심리학적 이해와 사고방식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학문과의 통합교육을 진행하여 심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사고 및 연구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⁵⁹⁾ 심리학의 통합교육 강조점은 사고력 확장과 응용력 계발을 위한 교육실용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주의심리학·아동심리학 계발 및 활용

북한은 1960년대 레닌의 반영론과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와 무조건 반사 기사를 게재하여 심리학 원리를 설명하였다.⁶⁰⁾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소련심리학과 일반심리학의 부르주아 특성을 비판하며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계발한 ‘주체심리학’이 등장하였다. 주체심리학은 ‘사회주의심리학’과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이다.

북한은 심리학 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심리학과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의 계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심리학 발전의 중

57) 『교원선전수첩』, 1호·2호(2011); 3호(2013); 3호(2015).

58) 『교원선전수첩』, 2호(2017), 62~63쪽.

59) 『교원선전수첩』, 1호(2011), 125~126쪽.

60) 『교원신문』, 1960년 1월 27일; 1960년 2월 13일.

요한 계기는 ‘맑스주의 심리학’이 형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⁶¹⁾ 그 이유는 맑스주의 심리학은 기존 일반심리학과 다르게 사상이론과 사회적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이론은 선행 노동계급의 혁명 사상이며 사회적 기초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제도 수립에 근거한 것이다. 맑스주의 심리학은 인간심리 본질에 관하여 맑스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반영론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맑스주의 심리학 연구는 인식심리, 능력심리, 활동심리 영역이지만 기존 일반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심리의 자주적 본성인 욕망, 지향, 감정과 정서, 의지와 신념 등은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런 반면, 선행 노동계급 심리학은 자본주의시대 노동계급과 지식인, 학생의 심리현상을 연구하여 사람에 대한 인식과 노동 및 창조활동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⁶²⁾ 그러나 사람의 복잡한 사상의식과 낡은 사회를 개조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심리학은 맑스주의 심리학과 선행 노동계급 심리학의 제한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인간심리 본질을 연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심리학은 인간심리의 본질, 사상의식의 심리적 내용, 각이한 계급과 계급의 심리특성을 밝혔다고 강조하였다.⁶³⁾

사회주의심리학의 인간심리와 의식은 김일성 항일혁명투쟁시기를 과학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회주의심리학은 “선행문헌 자료들을 론리적사유과정을 거쳐 분석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혁명과정에서 얻어진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람들과의 사업과정에

61) 리재순, “주체사상에 의한 심리학의 새로운 발전,” 『김일성대학총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49권 1호(2003), 26~31쪽.

62) 『교원선전수첩』, 2호(2005), 20~24쪽.

63) 리재순, “주체사상에 의한 심리학의 새로운 발전,” 26~31쪽.

이룩된 풍부한 경험을 새롭게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창조하신 새로운 사상과 이론”이라는 것이다.⁶⁴⁾ 따라서 인간심리와 의식은 김일성이 혁명과정에서 사람을 교양개조하며 의식화한 경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인 또는 사회 경험으로 얻은 심리학적 정보는 주위 사람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어느 정도 올바른 반응을 유도하는 광범위한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교육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기초로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 연구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객관적이며 예상되는 조건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⁶⁵⁾ 이런 맥락에서 김일성이 항일혁명 경험을 바탕으로 계발한 사회주의 심리학은 과학적이며 객관적이라는 것보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교육학 실현을 위하여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아동심리학을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문에서 사용하는 아동심리학 교과서는 “낡은 사회의 아동심리학의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아동심리학 교과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⁶⁾ 따라서 교원은 아동심리학 교재를 ‘집체적’으로 검토하여 “부르조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없애고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아동심리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⁶⁷⁾

64) 『교원선전수첩』, 1호(2005), 11~15쪽.

65) A. V. 페트로프스키(A. V. Petrovsky), 『인간행동의 심리학』, 13쪽.

66) 김일성,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동경(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445~446쪽.

67) 김일성, 위의 책, 445~446쪽.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드러낸 “아동심리사상과 이론을 옹호고수”하여⁶⁸⁾ 새 세대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동심리는 성인심리와 다르게 아동심리만의 고유한 특성과 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 변화와 정치·사회제도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아동심리의 특성을 해명하고 전반적인 체계를 재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회주의 아동의 심리특성을 ‘심오히’ 밝혀 아동심리학을 개발했다는 당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주의아동심리학에서 밝힌 아동의 심리특성은 ‘높은 사상의식, 감정정서, 도덕 룰리’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아동심리를 ‘사상의식을 핵’으로 연구하는 관점과 입장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적인 아동심리학과 물질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는 아동심리학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아동의 심리내용과 심리형성 과정의 합법칙성을 밝히는 심리학의 한 분과라고 밝혔다.⁶⁹⁾ 이 심리학은 아동의 정신 및 육체발달 특성과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⁷⁰⁾ 새 세대 교육은 아동의 심리특성에 기초하여 사상의식과 지적·육체적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워 줄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아동의 연령특성, 자주의식, 창조적 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과정의 심리학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 같다. 사회

68) 전극내 외, 『사회주의아동심리학: 교원대학 교원학과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3), 2쪽.

69) 『교원선전수첩』, 3호(2010), 182쪽.

70) 리영환, 『조선교육사』, 5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6쪽.

주의아동심리학 강조점은 아동의 심리가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은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⁷¹⁾ 아동은 사회적 환경의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으로 심리와 의식 형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교육은 ‘종합적인 사업’으로 모든 교육에 비하여 인간심리와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북한 당국은 학교교육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을 교육하고 더 깊게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상교육을 진행하여 사회주의 사회에 맞게 체화된 인간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심리학과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북한 주민의 심리와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이 심리학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체제 수립 이후부터 지향해 온 사상교육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심리학은 객관적인 지식체계보다 주체적 의미체계 특성으로 과학학문이 아닌 사상으로서 이데올로기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²⁾

4) 혁명적 세계관 및 논리적 사고력을 겸비한 인재교육 강조: ‘주체형의 혁명가’

북한의 인재교육 변화는 세계관 강화 및 실천 능력을 강조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드러난다. 첫째, 과학적 세계관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71) 김성철, “인간심리, 의식 발전과 교육,” 『철학연구』, 3호(1992), 41~44쪽.

72) 도홍렬, “사회주의 심리학의 비판,” 『북한학보』, 8권(1984), 193쪽.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세대 교육은 “청소년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주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⁷³⁾ 새 세대는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이다. 그로 인하여 북한 당국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혁명적 세계관을 교육하고 수령과 당에 충성하는 혁명가이자 공산주의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1953년 심리학교육의 목적은 인간 이해 및 과학적 세계관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 과학적 세계관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⁷⁴⁾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초기부터 세계관 정립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54년 교육과정에서 심리학 폐지로 교육목적은 지속되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다.

북한 당국은 2003년 교육과정에 재등장한 심리학교육을 통하여 혁명적 세계관을 형성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자 심리전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제국주의자는 사상문화 침투와 심리모략으로 “사람들속에서 수령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 량심과 의리로 충직하게 받들어 모시지 못하게 하려고 교활하고도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⁷⁵⁾ 제국주의자 심리전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혁명의 수뇌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 한다는 것이다.⁷⁶⁾ 따라서

73)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113~114쪽.

74)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507쪽.

75) 『교원선전수첩』, 2호(2008), 37~39쪽.

76) 송일혁,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심리전》의 목적과 그 기초,” 『김일성대학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52권 2호(2006), 31~34쪽.

사회정치적 생명, 즉 수령 중심의 혁명적 세계관 토대를 강화하여 한 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자 심리전은 사람의 생리적인 감정을 자극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주입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는 “개인이기주의에 물젖어있기때문에 사람을 사회적존재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존재로만” 본다고 하였다.⁷⁷⁾ 북한 당국은 제국주의자의 자본주의 사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황금만능 사상과 개인이기주의가 발생하여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혁명대오에 금”이 생겨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나타냈다.⁷⁸⁾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자본주의 사상, 개인이기주의는 부르주아심리학이 나타내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능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 같다. 따라서 사회주의심리학 교육을 통하여 혁명적 세계관으로 사상을 강화하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체현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산주의자 품모를 형성하면 제국주의 심리전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실천 능력은 논리적 사고력과 사업과의 사업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은 심리학이 인류역사에서 인간의 지능발달과 인재양성의 기틀이 된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였다.⁷⁹⁾ 그런 반면, 북한은 심리학을 인간의 사고력 발달과 인재양성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냈다. 북한 당국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지식경제시대 인재양성의 두 축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사람과의 사업 능력을 계발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당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심리학을 “마음의 리치를 밝히는 학문으로 나라의 훌륭한

77) 위의 글.

78) 『교원선전수첩』, 2호(2008), 37~39쪽.

79) 『교원선전수첩』, 3호(2011), 15~17쪽.

인재로, 민족간부로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학문”이라고 밝혔다.⁸⁰⁾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⁸¹⁾ 논리적인 사고력은 단순히 가치나 태도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처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다. 더불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기초로 사회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지식을 겸비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논리적 사고 향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사회가 과학 기술 발달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육체노동자에서 지식노동의 산업구조 변화가 인재양성 교육목적에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학생 기억력에 의존했던 교육은 현대사회의 최신 정보와 지식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력을 강화하여 현대정보화 시대의 지식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은 졸업 이후에도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된다.⁸²⁾

지식경제시대 인재양성의 또 하나의 자질은 ‘사람과의 사업’을⁸³⁾ 잘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사업 능력은 북한 주민을 사회적 인간으로서

80) 『교원선전수첩』, 3호(2013), 166~167쪽.

81) 『교원선전수첩』, 3호(2011), 15~17쪽.

82) A. V. 페트로프스키(A. V. Petrovsky), 『인간행동의 심리학』, 51쪽.

83) 북한 당국은 ‘사람과의 사업’은 정치 및 사상사업 이라고 설명하며 사회주의 건설 성공 여부를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람과의 사업’과 ‘정치사업’은 모든 인민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01쪽.

갖추어야 할 사상의식과 문화수준을 형성하게 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것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운다는 것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높은 창조적 능력을 지닌 인간들로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⁸⁴⁾ 주체형의 혁명가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인간의 심리 이해와 심리의식의 형성 원리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사람과의 사업이 ‘마음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람과의 사업 능력의 목적은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 동참하여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혁명인재는 사람과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간심리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⁵⁾ 사람과의 사업 예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제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일꾼들이 경제관리를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벌어나갈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서 심리학교육이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경제관리는 그 담당자인 사람들에 대한 관리로부터 생산수단과 생산체계, 생산적 공간에 대한 관리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일꾼들이 경제관리에 능수가 되려면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론리법칙에 맞게, 생산자대중의 능력과 심리적특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심리학교육은 학생들에게 수많은 론리법칙과 심리법칙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제관리에서 주관성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탐구적용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⁸⁶⁾

예시를 통하여 사람과의 사업 능력은 경제 사업에도 필요한 덕목인

84) 『교원선전수첩』, 3호(2015), 30~31쪽.

85) 위의 글.

86) 위의 글.

것을 알 수 있다.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 봉쇄를 성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⁸⁷⁾ 사고력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사업 능력은 경제 사업뿐만 아니라 군중의 마음을 이해하고 군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소양이기도 하다. 대중에게 존경 받는 일군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설계하기에 앞서 대중의 생각부터 알아보고 그들이 바라고 지향하는바를 옹계 리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하였다.⁸⁸⁾ 또한, 일군은 사람의 다양한 요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더라도 근본적인 요구와 방식은 “우리 당의..., 혁명방식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하였다.⁸⁹⁾ 혁명인재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근본적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지켜내기 위한 조직 동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이 중등교육현장에서 진행하는 북한심리학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중등교육의 학습 향상을 위하여 학생의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과 학교문화를 형성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학생의 사고력 확장과

87) 『교원신문』, 2003년 10월 30일.

88) 고금녀, “사람들의 마음을 리해할줄 아는 것은 군중의 존경을 받는 일군이 되기 위한 중요요구,” 『철학연구』, 3호(2015), 26~27쪽.

89) 위의 글.

응용력 계발을 위하여 타 학문과의 통합적 시행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심리학과 논리학의 통합 교육은 아동의 심리발달 과정에서 사고 구성 능력이 교과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⁹⁰⁾ 고려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심리학은 북한 사회 안정을 위한 인적 자원 도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청소년은 성인 전 단계로 중등학교 졸업 이후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해서 사회로 나간다. 북한 당국은 중등교육 단계의 학생이 사회 진출 전 심리학 교육에 의존하여 세계관 및 사상을 강조하고 사람과의 사업 능력을 겸비하여 북한사회 건설에 헌신할 수 있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교원선전수첩』 기사 분석으로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심리학에서 우리식 심리학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주체심리학을 토대로 일반심리학을 교육현장에 활용하며, 세계적인 교육 흐름에 따라 심리학을 실용화·현대화·종합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심리학의 통합적 시행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심리학 하위 학문 영역 및 타 학문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심리건강 도모 및 사상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리평가 목적은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사상 검증용 자료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은 통합교육을 지향하며 심리학적인 이해와 사고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북한 당국은 맑스주의 심리학과 일반심리학을 비판하며 사회주의심리학과 사회주의 아동심리학을 계발하였다. 사회주의심리학과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주체사상의 기반을 강조하며, 인간심리와 의식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90) 김재건, “교육과정에서 논리와 심리의 통합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13호 (2003), 13쪽.

밝혔다는 것을 역설했다. 넷째, 혁명적 세계관 및 논리적인 사고력을 겸비한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인재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명적 세계관 강조는 제국주의자의 심리전에 저항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내려는 의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 자질로 논리적인 사고력과 사람과의 사업 능력을 겸비하도록 강조했다. 이것은 주체사상 관점에서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북한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독려하여 당에 충성하도록 지도하는 일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심리학은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인간의 심리와 의식에 대한 심리학을 기반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상이 건강하여 북한 당국의 요구와 방침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교원선전수첩』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북한심리학의 특징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 연구는 『교원선전수첩』 심리학 기사가 나타내는 교육현장의 모습을 부분적이거나 드러내고자 시도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에서 실시한 교육 체계를 모두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교과서 분석 및 시기별 북한심리학의 실태와 변화 과정, 대학 교육에서 수행했던 심리학교육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4월 11일 / 채택: 4월 12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교육도서출판사,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김상현·김광현, 『대중 정치 용어 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김일성,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동경(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김정일, “일군들의 레의도덕을 잘 지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철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리영환, 『조선교육사』 5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리재순, 『심리학개론』(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8).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전극내·최정순·전사흠, 『사회주의아동심리학: 교원대학 교원학과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3).

집필위원회, 『사회주의 심리학: 사범대학용』[도표: 학우서방(번각), 1974].

2) 논문

고금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줄 아는 것은 군중의 존경을 받는 일군이 되기 위한 중요요구,” 『철학연구』, 3호(2015), 26~27쪽.

김미화, “군중심리평가의 특성,” 『철학연구』, 1호(2014), 31~32쪽.

김성철, “인간심리, 의식 발전과 교육,” 『철학연구』, 3호(1992), 41~44쪽.

남승일, “부르조야심리학에 대한 비판,” 『철학연구』, 3호(1988), 46~47쪽.

리재순, “주체사상에 의한 심리학의 새로운 발전,” 『김일성대학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49권 1호(2003), 26~31쪽.

박정철, “학습장애에 대한 일반적리해,” 『철학연구』, 3호(2012), 35~36쪽.

승일혁,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심리전>>의 목적과 그 기초,” 『김일성대학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52권 2호(2006), 31~34쪽.

최명애, “심리교수에서 중점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한 련관 내용을 인식시키는데 서 나서는 문제,” 『인민교육』, 4호(2015), 51쪽.

3) 신문

『교원신문』, 1955년 8월 10일; 1957년 3월 9일; 1960년 1월 27일; 1960년 2월 13일; 1960년 5월 21일; 1960년 5월 29일; 2003년 10월 30일.

『교육신문』, 2015년 5월 28일.

4) 기타

『교원선전수첩』, 2003년~2018년 6월.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서울: 문맥사, 1990).

김형찬,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_____, 『북한교육발달사』(서울: 한백사, 1988).

애플, 마이클(Michael W. Apple), 『교육과 이데올로기』, 박부권·이혜영 옮김(서울: 한길사, 1985).

오기성·박창언·신효숙, 『남북한 통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연구』(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오카다 다카시(岡田尊司),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 황선중 옮김(서울: 에크로스, 2010).

이영미, 『북한 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문화사, 2012).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페트로프스키, A. V.(A. V. Petrovsky) 외, 『인간행동의 심리학』, 김정택 옮김(서울: 사상사, 1993).

2) 논문

김익현, “주체사상 체계화 이후 북한철학에 나타난 변화와 이론적 특징,” 『통일

- 인문학』, 50권 2호(2010), 65~102쪽.
- 김옥주, “20세기 중엽 소련의 의학사상-파블로프 이론과 스탈린주의의 결합,” 『한국과학사학회지』, 22권 2호(2000), 238~261쪽.
- 김재건, “교육과정에서의 논리와 심리의 통합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13호(2003), 1~17쪽.
- 도홍렬, “사회주의 심리학의 비판,” 『북한학보』, 8권(1984), 183~205쪽.
- 배영기, “북한 교육현실과 ‘사회주의심리학 교재’ 비판,” 『北韓』, 184호(1987), 170~179쪽.
- 신효숙,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2006), 131~157쪽.
- _____,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현대북한연구』, 2권 2호(1999), 155~217쪽.
- 이병창, “해방 이후 북한철학사: 의식, 문화, 도덕, 심리에 관한 철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5권 2호(1994), 96~132쪽.
- 이영미, “북한 문학교육의 내적 동학(動學),” 『현대문학이론연구』, 30집(2007), 27~51쪽.
- 이훈, “북한철학의 흐름,” 『시대와 철학』, 5권 2호(1994), 11~37쪽.
- 정영철,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와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의 등장,” 『한국과 국제정치』, 31권 3호(2015), 57~83쪽.
- 한선화 외,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 『의사학』, 22권 3호(2013), 801~846쪽.

3. 국외 자료

1) 논문

- Rahmani, Levy, “Social Psychology in the Soviet Union,” *Studies in Soviet Thought*, Vol.13, No.3/4(1973), pp.218~250.

Analysi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n “Kyowon Sonjon Suchop”

Kim, Kyoung Mi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in North Korean education through analyzing the articles of “Kyowon Sonjon Suchop”. This study reveals North Korea’s psychological goal of “Revolutionary talent of knowledge economy possessing logical thinking ability and ability to work with people” and searched for North Korean psychology.

Psychology emerged in 1953, abolished in 1954, and reopened in 2003 in accordance with the North Korean Education Act enactment and amendment. Since 2000, North Korea has emphasized globalization and scientific development and suggested the need for psychological education. As a resul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introduced psychology to the entire curriculum, attempted to establish a psychological system of ours, and revealed the will to build a tool for thought verification through psychological evaluation beyond

understanding the mind of a person. In addition, we pursued logical thinking and education programs that strengthened the revolutionary worldview.

Keywords: North Korea education and psychology, socialism psychology, Kyowon Sonjon Suchop, knowledge economy era revolutionary talent.